

2008년12월31일 수요일 메세지

내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집회했을 때는 교회도 없었는데 지금은 말레이시아 선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너무 뜨겁다고 느꼈는데 다른 나라로 갔을 땐 안 느껴졌습니다. 것처럼 하나님도 멀리 있으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라 다시 할 수 없는 역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있다가 떨어지면 못 느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야 느껴집니다. 아무리 죽을 고비에서 살려줬어도 그때만 감사하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못 보니까 회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영하고 육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닮았습니다. 부모 닮은 것 보다 더 닮았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 영도 서로서로 다 닮았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배경이 없었습니다. 능력은 있고 실력은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뛰쳐나와 세상 나가서 한국을 들끓으면서 1년에 만 명씩 전도 하니까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루에 제일 조금 전도할 때가 8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 집에 안 간다고 하고 거리에서 잤습니다. 150-800명까지는 할 만 합니다. 핏박이 있어서 안 됐지만 내가 나가면 금방 100만 명 할 것입니다. 100%할 수 있습니다. 연단 받았으니 할 수 있습니다.

부교역자 하는 사람들은 만날 부교역자만 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이 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하도록 배치시켜서 해야 됩니다. 항상 부교역자들은 어디를 가도 부교역자만 하고 원 교역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면 둘째가 결혼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0년 만에 와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학교 학생부터 전도해서 주일 학교를 만드니까 예수님이 교역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결교에서 집회하고 돌아다니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열심히 책을 보라고 해서 70일씩 밥을 굶으면서 거리를 돌아다닐 때였는데도 3천원이나 읽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단체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다른 데는 없

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이나 청소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해서 인재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인재를 기르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인재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잡지 못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서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다른 것도 붙어 붙어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세계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우리는 50개국 나라에 교회가 있으니 교인들은 안 해도 회원들이 하면 됩니다. 회원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니까요. 공연이나 뮤지컬도 자꾸 인터넷에 올려서 보게 하십시오.

옛날에 태벤 이란 소극장이 있었는데 100명밖에 안 들어가는 곳이었는데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거기를 일으켜 엄청난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자꾸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바깥으로 확 번져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예수님 때부터 확 번져 나가서 로마를 점령하고 교황청을 만들고 세계로 막 밀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안에서만 단체가 있으면 방 안통소입니다. 나도 10년 동안 해외 나갔다 오지 않았으면 월명동에서 매일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갔다 오니까 진작 나갈 걸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비해 뒀는데 안 갔으면 너무 아까울 뻔 했습니다. 통역관들도 이미 15년 전부터 준비돼서 내가 가니까 탁탁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필요하면 딱 보입니다. 영으로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끝까지 하면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전에 승무원 시험에 3번 떨어져서 계속 시험을 봐야 하냐고 내가 물어 끝까지 해보라고 4번째 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 자살직전 까지 갔던 사람이 진로를 물어 와서 고시 공부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결과 고시에 합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3년 안에 100만 명이 올 것이니 준비하고 관리 잘 해야 합니다